

『코로나19』가 일본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 최근 일본에서는 「COVID-19」가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미있는 설문조사결과가 발표됨
- 동경상공리서치(TSR)의 「新型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설문(‘20.2.)」에 따르면 ‘현시점에서 기업활동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가 22.7%, ‘향후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가 43.7%로, 전체 기업 66.4% 이상이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글로벌 컨설팅 그룹 PwC의 「新型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COVID-19) 대응에 관한 CFO 설문조사(‘20.4.)」결과, 일본의 CFO의 71%가 ‘사업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80%의 CFO가 ‘실적에 악영향이 있다’고 응답
- 「COVID-19」의 글로벌 확대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는 일본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대책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1. 동경상공리서치(TSR)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관련 설문 조사

□ 조사 개요

중국 우한發「COVID-19」감염 확대가 기업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IT 대기업 애플은 감염확대로 인해 중국의 생산거점에서 풀가동 불가 및 중국 국내의 판매점 폐쇄 등을 사유로 한 「예상 매출 달성 불가」발표(‘20.2.17). 일본 국내기업도 심각한 상황 속출

- ❖ 조사 대상: 일본 국내 대·중소기업
- ❖ 조사 기간: 2020년 2월 7일 ~ 16일
- ❖ 조사 방법: 인터넷 설문
- ❖ 유효 응답 기업: 12,348 사
 - 규모별: (대기업) 2,344사(자본금 1억엔 이상), (중소기업) 10,004사(자본금 1억엔 미만)
 - 업종별: (제조업) 3,540사, (도매업) 2,816사, (서비스업) 2,089사, (운수업) 518사, (건설업) 1,494사, (농·임·어·광업 등) 49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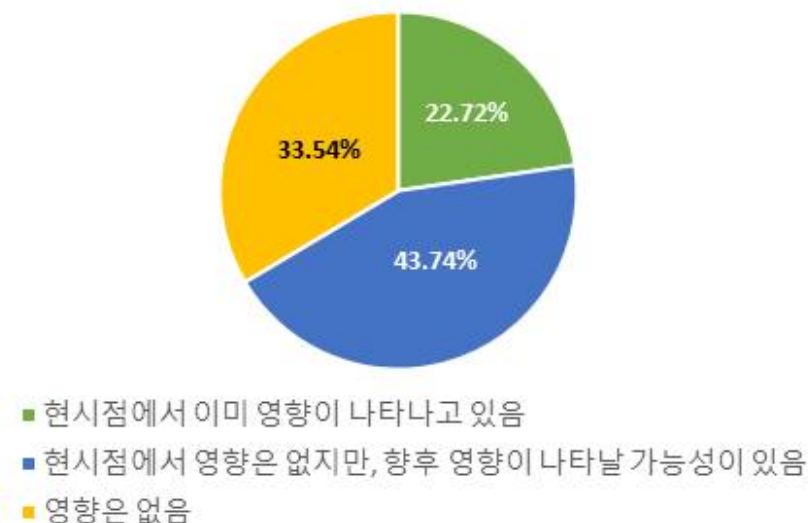
- ◇ 동경상공리서치(TSR) 소개 / 株式会社東京商工リサーチ (www.tsr-net.co.jp)
 - 규 모: 일본 국내 제2위 신용조사기관-일본 전국 82개 사무소 개설(지사8, 지점74)
(일본 국내 제1위 신용조사기관은 「帝国データバンク」)
 - 주요사업: 국내·해외기업의 신용조사, 수집한 기업정보를 기반으로 한 DB사업(현재 일본 최대급 400만사 이상 보유), 정보사업(도산집계·세미나 등), 출판사업 등

□ 조사 내용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현시점에서 기업활동에 영향은 없지만 향후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가 43.7%(5,401사)로 가장 많았고, ‘현시점에 이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가 22.7%(2,806사)로 기업활동에 영향이 있다고 답한 기업이 66.4%를 차지
- 기업 규모별로 보면, ‘현시점에서 이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응답은 대기업이 31.5%(739사)인 반면, 중소기업 20.6%(2,067사)에 그쳐 대기업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중국과 직·간접으로 거래 밀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

전체 응답 기업: 12,348 사



- 산업별로 보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업종은 도매업, 운수업, 제조업에서 각각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나타날 가능성’은 제조업이 51.7%(1,833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매업 47.3%(1,333사)으로 전망
- 세계적인 공급망(GVC: Global Value Chain)을 구축한 제조업과 가격경쟁 등으로 해외 조달 상품을 수입하고 있는 도매업 등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숙박업·여행업이 포함된 서비스업 등은 예상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낮은 38.3%(802사)로 나타남
- 관광버스 운행회사가 포함된 운수업은 ‘영향이 없다’가 29.3%(152사)로 방 일 관광객의 감소, 국내 여행 감소 등이 원인으로 보여짐

- 한편, 건설업에서는 62.3%(932사), 농·임·어·광업에서는 53.0%(26사)가 ‘영향이 없다’고 응답하여, 내수 중심으로 전개하는 기업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확대에 의한 영향은 생각 보다 작은 상황

〈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기업 비즈니스활동에 미치는 영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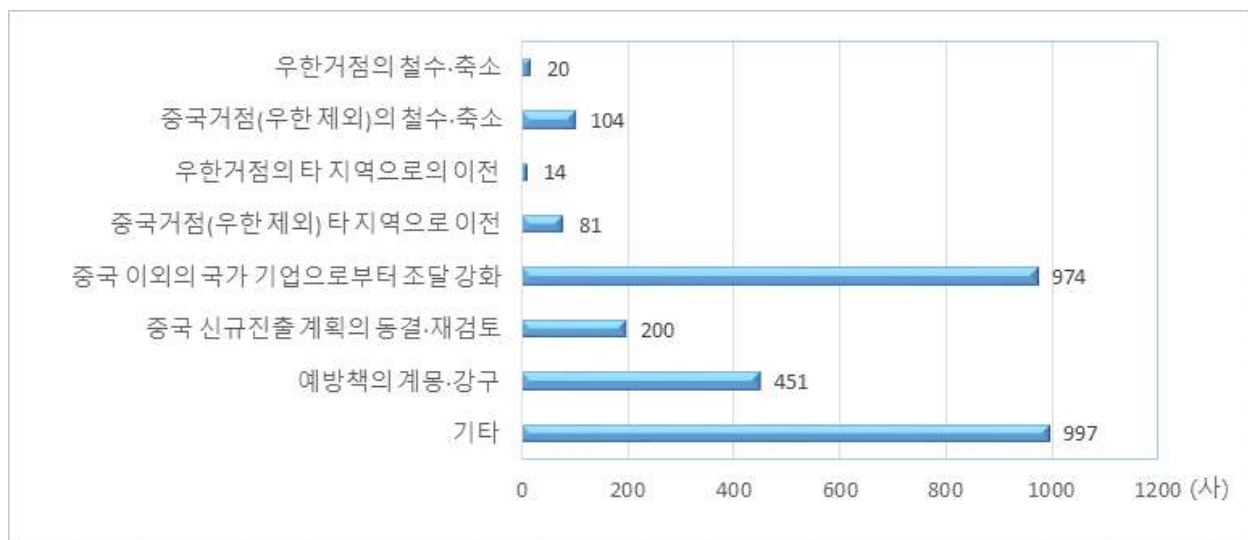
산업	이미 나타나고 있음(社)	〈구성비〉 (%)	향후 나올 가능성(社)	〈구성비〉 (%)	영향 없음(社)	〈구성비〉 (%)	합계 (社)
농·임·어·광업	4	81.6	19	38.78	26	53.06	49
건설업	87	5.82	475	31.79	932	62.38	1,494
제조업	944	26.67	1,833	51.78	763	21.55	3,540
도매업	832	29.55	1,333	47.34	651	23.12	2,816
소매업	149	23.35	271	42.48	218	34.17	638
금융·보험업	25	17.99	55	39.57	59	42.45	139
부동산업	45	15.15	107	36.03	145	48.82	297
운수업	141	27.22	225	43.44	152	29.34	518
정보통신업	125	16.28	281	36.59	362	47.14	768
서비스업·기타	454	21.7	802	38.39	833	39.88	2,089
합계	2,806	-	5,401	-	4,141	-	12,348

- ‘이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힌 기업은 총 2,745사(복수 응답)로 조사됨
 - 그중 ‘출장 중지·연기’가 39.3%(1,081사)로 가장 많았고, ‘현지 공급사로부터 원재료·부품조달곤란’이 35.9%(987사), ‘매출 감소’가 32.7%(899사), ‘영업일수 감소’는 20.5%(565사) 순으로 나타남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부터 약 2개월 경과 후 이미 중국에서는 기업 신용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현지 거래처의 사업정지 및 도산’은 4.9%(135사), 기타로는 ‘M&A의 중지 검토’ 및 ‘전시회, 이벤트의 중지·연기’ 영향 등이 있음
- ‘향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힌 기업은 총 5,133사 (복수 응답)
 - 그중 ‘매출 감소’가 42.3%(2,176사)로 가장 많았고, ‘현지 공급사로부터 부품 조달 곤란’이 30.1%(1,550사), ‘현지 거래처의 사업 정지 및 도산’을 우려하는 기업은 6.6%(342사)로 나타남
 - 그 외 ‘금융기관의 융자정책의 변화’, ‘S/W 위탁개발의 지연’,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자의 감소·쇠퇴’, ‘임직원의 코로나 감염우려’ 등이 있음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에 대해 11,872사가 응답, 그 중 ‘대응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3.9%(2,838사)에 이르고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76.1%(9,034사)를 차지
- 기업 규모별에서는 대기업(2,234사)의 39.5%(883사)가 ‘대응을 준비하거나, 이미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소기업(9,638사)에서는 20.2%(1,955사)에 그쳐 기업 규모에 따라 대응에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남
- ‘대응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중 구체적인 대응책을 밝힌 기업은 2,638사이며, 그중에서도 공급사슬의 재구축 움직임이 다수를 차지(복수 응답)
- ‘중국 외에 소재하는 기업으로부터 조달 강화’가 36.9%(974사), ‘중국 신규 진출계획 동결·재검토’가 7.5%(200사), ‘중국 거점 철수·축소’는 3.9%(104사)로 나타나 많은 일본기업이 공급사슬·거점을 원점에서 재고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의 대응책 〉

전체 응답 기업: 2,638 사(복수 응답)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향후 영향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11,352사가 응답하였고, 응답 기업의 과반수가 중국 경기 침체를 우려
- ‘중국의 소비 감속, 경기 침체’가 51.3%(5,834사)로 가장 많았고, 이는 중국 경기가 일본 국내기업의 수주·실적과 직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으로 ‘공급망 사슬의 영향’이 36.5%(4,154사), ‘해외 출입국 심사의 강화에 대한 부담’이 18.8%(2,140사)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에 따른 향후 우려 〉



전체 응답 기업: 11,352 사 (복수 응답)

- 일본 정부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대책본부 회의(2.13)에서 일본정책 금융당국에 총 5,000억엔의 긴급융자·보증한도를 마련하기로 하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변제완화 요청에 대해 유연한 대응을 지시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로 일본 국내기업의 약 66.4%가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는 ‘향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응답하여 기업들은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산업별로 보면 운수업은 70%가 넘는 기업이 ‘영향이 있다’ 라고 응답했고, 숙박업 및 여행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은 약 60%의 기업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조사됨
- 위를 종합하면 공급망 사슬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고, 조달처의 변경, 중국거점의 이전 및 철수·축소를 검토하는 기업도 있고, 시간이 길어지면 감원 등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음
 - 또한, 중국의 경기 감속에 대한 우려는 과반수를 넘어 많은 일본 국내기업이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의 경기에 민감하다는 것이 드러남
 - 일본은 아직 코로나 감염확대의 종식 기미가 보이지 않고 경로 불명의 감염까지 확산되고 있어 일본 국내기업들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2. PwC ‘COVID-19’ 대응에 관한 설문 조사

□ 조사 개요

세계적인 글로벌 컨설팅 회사 PwC 그룹은 「COVID-19」에 관한 기업의 우려 및 과제, 대책에 대해서 CFO를 대상으로 ‘주기적 조사(Pulse Survey)’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소개할 자료는 제2차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

* 제1차 조사(2020.3.23~27)는 8개국 150명의 CFO를 대상으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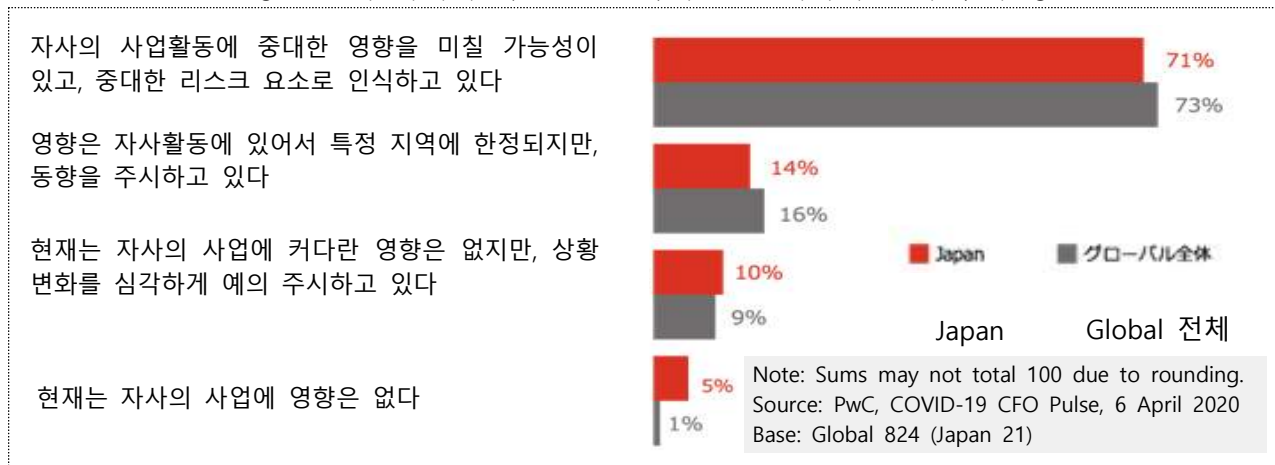
** 제2차 조사(2020.4.6~10)는 21개국 824명의 CFO(일본 CFO 21명)를 대상으로 실시

- 일본의 CFO 71%가 이번 코로나 감염확대는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약 80%의 CFO가 ‘실적에 악영향이 있다’고 응답
- 일본의 CFO 43%가 M&A 전략에 대해서 ‘현시점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M&A 의욕 증가’라고 응답한 CFO는 글로벌 전체에서는 13%인 반면, 일본의 CFO는 ‘0%’
- 일본의 CFO 33%가 ‘이 위기가 종식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비즈니스가 통상적인 상태로 회복’한다고 했으나, 글로벌 전체에서는 56%로 나타나 일본 기업보다는 긍정적인 시각

□ 조사 내용

- 일본의 CFO는 ‘COVID-19’ 사태로 사업활동의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조사 대상인 일본 CFO의 71%가 이번 감염확대는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
 - 현시점에서 ‘악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겨우 5%로 조사되어 조사 대상 일본기업의 95%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대다수(81%)가 수익 감소를 예상하고 있고 이러한 결과는 조사 참가국 전체의 CFO 응답에서도 동일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에 170개국 이상에서 1인당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COVID-19’ 발생으로 2020년에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1.5%로 둔화할 것으로 예측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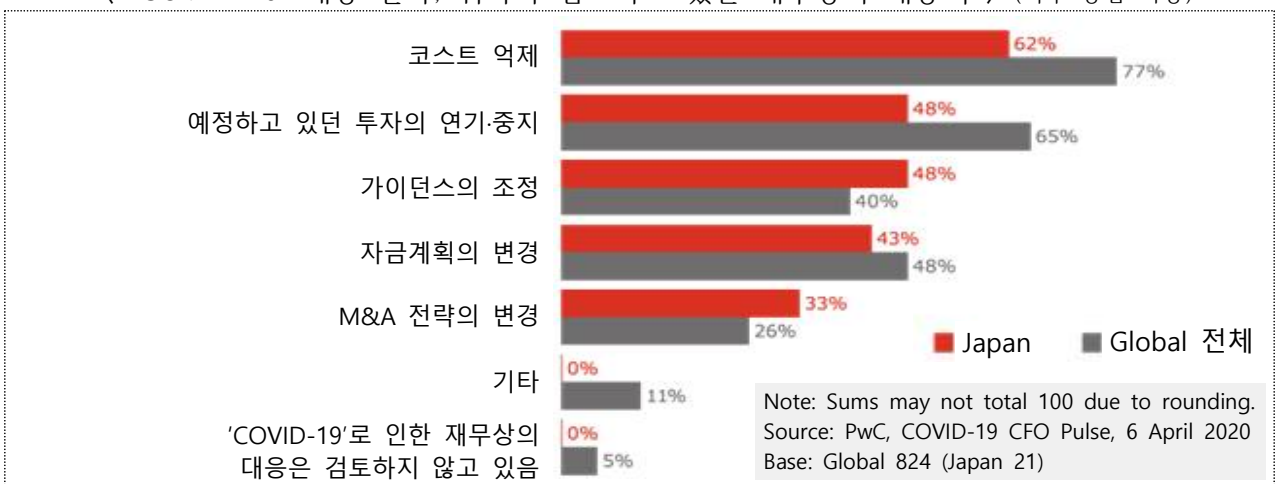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관한 귀사의 현재 우려 정도 〉



자료: PwC Global Report, April 14, 2020

- 많은 CFO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코스트 억제임
 - ‘COVID-19’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재무적인 조치에 대해서 일본의 CFO는 ‘코스트 억제’ (62%)가 가장 많았고, ‘예정하고 있는 투자의 연기·중지’ (48%), ‘가이던스(실적 전망치) 조정’ (48%)에 대해서도 약 과반수가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
 - 투자전략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CFO가 고려하고 있는 삭감 대상은 ‘오퍼레이션 코스트’ (70%)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일반적인 설비투자’ (50%), ‘R&D(연구개발)’ (40%) 순으로 조사됨
 - 글로벌 CFO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인 설비투자’ (80%)가 가장 많았고, 대부분의 종업원이 사무실·공장으로부터 떨어져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현상을 감안, 기업은 설비나 유지·보수 코스트 삭감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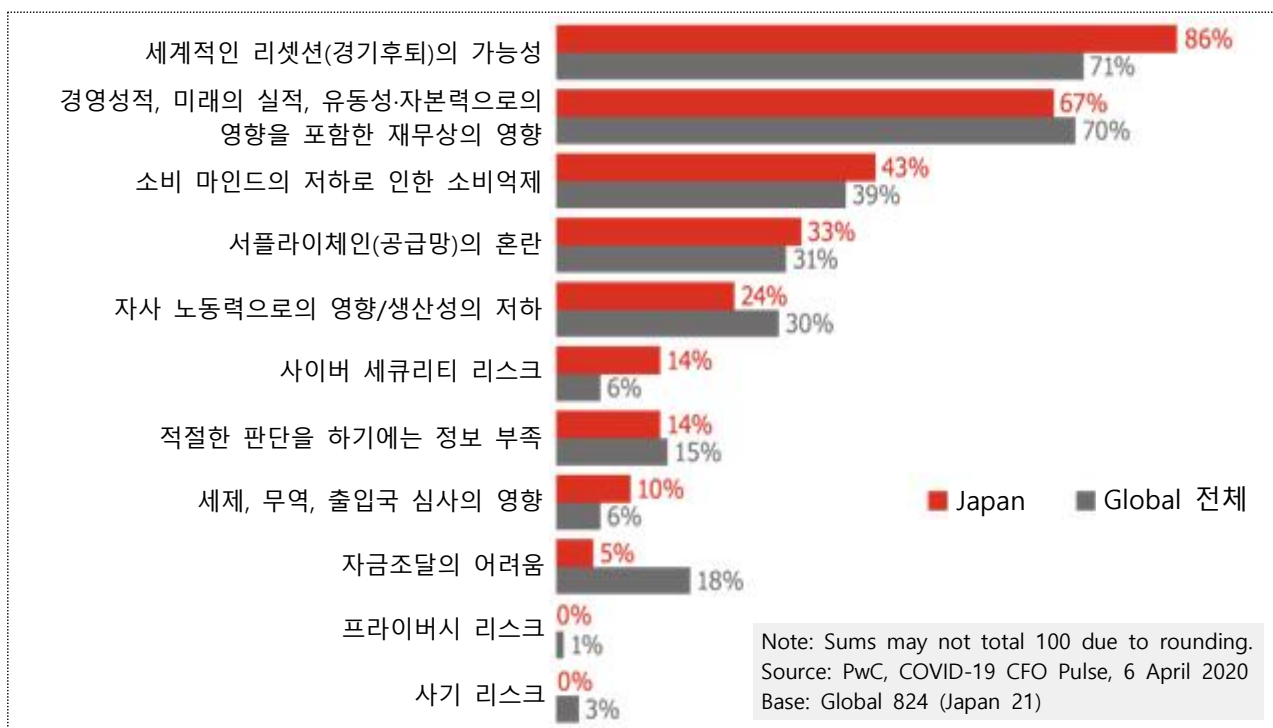
〈 ‘COVID-19’ 대응 결과, 귀사가 검토하고 있는 재무상의 대응책 〉 (복수 응답 가능)



자료: PwC Global Report, April 14, 2020

- 세계적인 경기후퇴, 실적의 악영향, 소비억제 등 3가지가 가장 큰 두려움
 - ‘COVID-19’ 영향에 일본의 CFO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 리셋션(경기후퇴)의 가능성’ (86%)에 이어서, ‘경영성적, 미래실적, 유동성·자본력 등 재무적인 영향’ (67%), ‘소비심리 저하로 인한 소비억제’ (43%)로 이러한 경향은 글로벌 CFO를 대상 조사 결과와도 일치
 - 일본의 CFO는 ‘사이버 안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고, 자금조달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발행예정인 대외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CFO의 81%가 ‘COVID-19’ 영향으로 사업의 리스크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
- ‘COVID-19’ 영향으로 인한 불투명해진 미래에 대한 위기 대응은 초기 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일본의 CFO 29%는 ‘M&A 어프로치를 변경할 예정이 없다’, 43%는 이번 위기가 ‘M&A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라고 응답했으며, 글로벌 전체에서는 13%가 ‘M&A에 대한 적극적인 의욕이 있다’고 밝힌 반면, 일본 CFO의 응답은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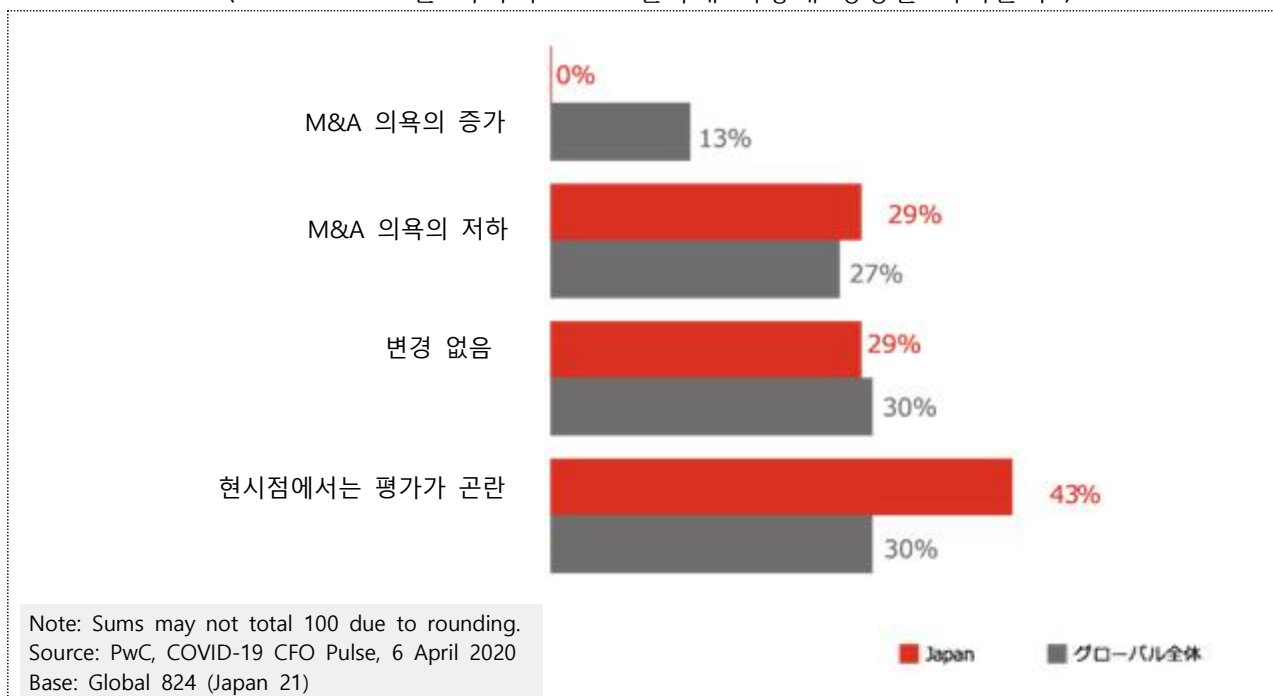
〈 ‘COVID-19’와 관련해서 가장 우려되는 점 3가지 〉 (3개까지 선택가능)



자료: PwC Global Report, April 14, 2020

- 공급망과 관련 일본 CFO의 57%가 ‘현시점에서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라고 응답하여 ‘M&A’ 와 ‘공급망’ 에 대해서 일본 기업들은 신중한 자세를 유지
- 약 70% 기업이 비즈니스가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 3개월 이상 소요 예상
 - 현시점에서 68%의 일본 CFO는 ‘COVID-19의 확대가 바로 종식했을 경우, 일상적인 비즈니스로 회복하는데 3개월 이상 걸릴 것을 예상한다’ 고 응답.
 - 한편, ‘3개월 이내로 회복한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일본 기업은 약 30%에 그쳤고, 글로벌 전체로는 과반수를 넘는 56%인 것과 비교하면, 일본 기업들이 좀 더 신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COVID-19’는 자사의 M&A 전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 Japan , Global 전체



자료: PwC Global Report, April 14, 2020

- CFO / 재무담당책임자를 통한 위기의 대응 진화
 - ‘COVID-19’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CFO 및 재무담당 책임자는 ‘서플라이 체인’ 이나 ‘M&A’ 라고 하는 특정 분야에 있어서 계획 수립·확정하기 위해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

〈 ‘COVID-19’가 바로 종식될 경우, 자사의 비즈니스가 일상으로 회복까지 걸리는 기간 〉



자료: PwC Global Report, April 14, 2020

Note: Sums may not total 100 due to rounding.
Source: PwC, COVID-19 CFO Pulse, 6 April 2020
Base: Global 824 (Japan 21)

- 대다수 기업은 지금도 위기 대응 초기 단계에 있고, 회복 후의 전체상을 확정하고 의사결정을 실시하는 기업은 지금 시점에서는 많지 않음
-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COVID-19’ 감염 확대로 미증유의 혼란을 겪고 있지만, 종식을 향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PwC에서는 CFO나 재무담당 책임자의 의식 및 행동이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Pulse Survey)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 예정

「PwC's COVID-19 CFO Pulse Survey」

PwC는 ‘COVID-19’의 세계적 감염확대로 인해 비즈니스 및 경제로의 영향을 특정하기 위하여, CFO 및 재무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조사를 원격으로 실시. 2020년 4월 6일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21개의 국가와 지역의 기업 CFO 824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분석

◆ 참가국(21)

(아메리카_5) 미국, 아르메니아,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유럽_10)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아시아_6) 일본, 카자흐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중동(※)

※ 바레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팔레스타인

3. 시사점

- 코로나19 관련 일본기업의 두 가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일본기업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상황이 종료된 이후 3개월 이상이 지나야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

- 산업별로 보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업종은 도매업, 운수업, 제조업에서 각각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나타날 가능성’은 제조업이 51.7%(1,833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매업 47.3%(1,333사)으로 조사됨
-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일본기업의 경우 투자가 위축되고 생산거점의 이동 등을 고려하는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음
- 기업의 투자 위축은 세계적인 경기 후퇴와 재무적인 악영향, 소비 억제 현상 등을 감안하면 보수적 형태는 충분히 예상됨
- 생산거점의 국내이동(reshoring)은 일정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판단됨
- 하지만 일본도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때부터 실시한 리쇼어링 정책은 가속화될 수도 있을 것임
- 금년 4월 일본정부는 2조50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생산거점을 국내로 이전할 경우 대기업은 50%, 중소기업은 67%의 이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
-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중국거점 일본기업의 국내 유턴현상은 미국의 강한 드라이브 정책으로 가속화될 수도 있고, 글로벌 공급망 사슬의 대변화의 가능성이 있어 우리 기업에게는 글로벌 공급망에 진출과 동시에 공급사슬 재구축의 계기로 활용
- 일본 CFO의 43%가 M&A활동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우리 대기업들은 첨단 소재, 부품, 장비산업을 중심으로 M&A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 CFO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지속적으로 예정되어 있어 일본기업과 글로벌 CEO들의 인식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기업 전략수립에 활용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

株式会社 東京商工リサーチ,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 2020.2.20
PwC, COVID-19対応に関するCFOパルスサーベイ, 2020.4.14. 등